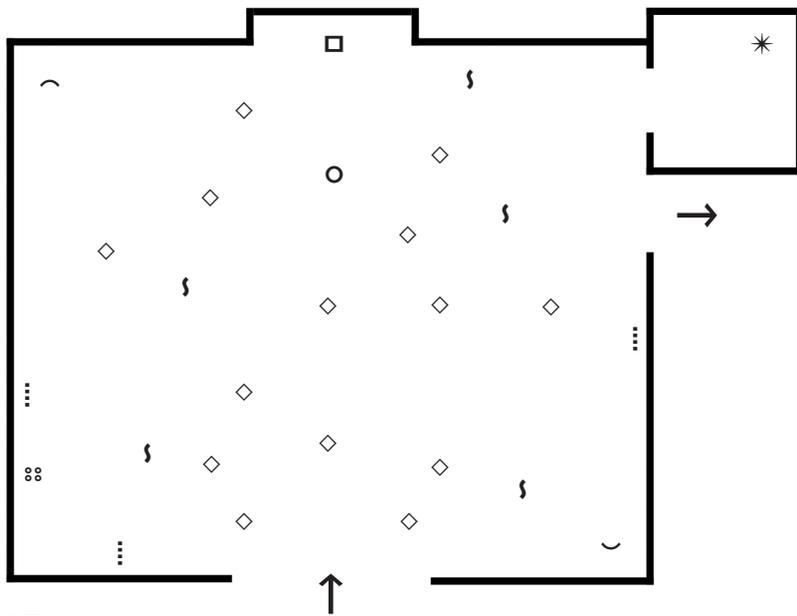


PLAYING DRAWING : after drawing

이현수 Hyunsoo Lee

2018.04.18-05.08 탈영역우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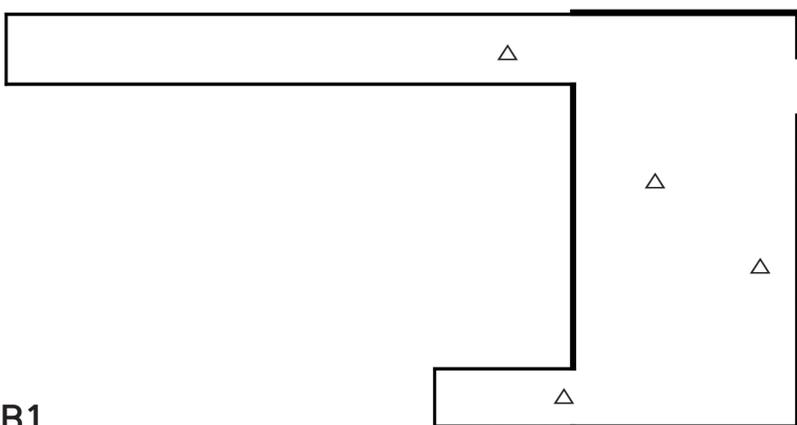


1F

- ~ 무지개가 뜨는 자리_어른을 위한
2018, 아크릴, 분광필름, 유토, LED 형광등, 가변설치
남녀노소 누구나 무지개를 좋아한다. 어느 순간 반짝 떴다가 사라지고 세상 모든 색을 담고 있어서 아닐까. 그런 무지개를 그리기란 쉽지 않다.
- ~ 무지개가 뜨는 자리_아이를 위한
2018, 아크릴, 분광필름, 유토, LED 형광등, 가변설치
남들에게 드로잉에 대해 아직 무엇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것이 마치 아이 같다고 이야기 하곤 한다. 전시장에 오는 아이들을 위한 드로잉도 만들었다.
- ◇ 반짝이는 드로잉
2018, 모터, 트레팔지, 은박 종이, 천장에 12개, 가변설치
종이풍선 공을 만들어 안에 은박 종이가루를 넣었다. 종이 안에 종이. 은박 종이가 반짝이며 다양한 궤적을 그리다 바닥에 드로잉을 남긴다.

- 독무대
2018, 더블베이스 공연, 16min
팀을 이루지 않고 독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더블베이스와의 솔자리 대화에서 영감을 얻다. 작품의 기초역할과 부분을 자처하는 드로잉이 독립적인 작품으로 전시되듯 그들이 내는 소리도 오롯이 들어보면 음악 그 자체이기도 드로잉의 특성을 매개한 협업 형식의 단독공연. 드로잉으로 독무대를 만들고 연주자는 그 위에서 드로잉의 특성을 홀로 연주한다.
- 독무대 드로잉
2018, 더블베이스 연주가 성열원의 즉흥곡 악보
완전한 곡의 악보는 누군가에게는 드로잉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나한테는 완성된 회화 같은 느낌이다. 연주자들이 즉흥곡을 칠 때 미리 악보에 몇 군데에만 표시만 해놓는 악보를 보게 되었는데 드로잉이더라. 그날 느낌에 따라 그대로 칠 때도, 다르게 칠 때도 있다고 한다.
- § 부풀린 선-들숨
2018, 헬륨풍선, 리본끈, 유토, 가변설치
부풀 풍선에 달려 팽팽했던 리본들은 공간에 직선으로 머물다 이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곡선으로 바닥에 예상하지 못하는 드로잉들을 만들어 낸다. 가볍고 유연하게 변해가는 드로잉.
- * 번쩍이는 드로잉
2018, LED 조명, 종이, 가변설치
간상이 영어로 after image 라면 after drawing은 무얼가라는 질문에서 만들다. 잠시 눈에 머물며 뚱뚱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드로잉.
- :: 보이지 않는 면
2018, 퍼포먼스, 12min
전시시간 내에 지정되지 않은 시간대에 나타나 흰 벽에 하얀 베이비 파우더 가루를 문지른다. 보이지 않는 드로잉은 흔적을 남기고 아이 냄새를 풍긴다. 지난 겨울 아침 눈이 내린 집밖 풍경에 남겨진 발자국들이 드로잉 같았다.
- :: 보이지 않는 선
2018, 가변설치
전시장 벽과 동일한 색의 페인트를 붓에 묻혀 벽의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한 줄기 흘러 내린다. 반짝이며 살아 움직이듯 선을 그리며 내려오던 드로잉은 이내 말라 사라진다. 뉴욕에서 참여하게 된 그룹 전에서 먼저 선보였던 퍼포먼스. 마침 타지에서 유학생활 중이던 내 상황에 빗대어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다. 당시 전시장은 빨간색 벽이라 빨간색 페인트를 사용.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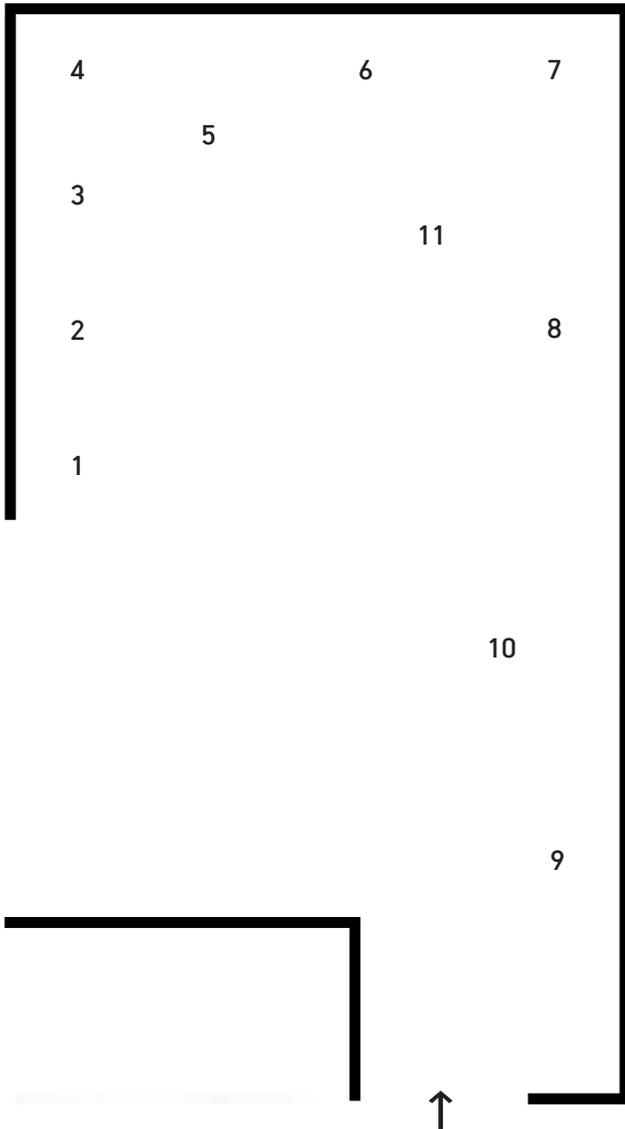


- △ 반짝이는 드로잉
2018, 피규어 거치대, 프리즘, 조명, 가변설치
빛은 드로잉의 재료로 적합하다. 굳게 멀리 뻗으며 다양한 색을 지녔기에 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드로잉이 가능하다.

PLAYING DRAWING : before drawing

2018.04.17-04.29 서교예술실험센터

이현수 Hyunsoo Lee



1 보이지 않는 면
2018

이렇게 문지르면 어떨까 저렇게 문지르면 어떨까.

2 번쩍이는 드로잉
2018

이렇게 비춰보면 어떨까 저렇게 비춰보면 어떨까.

3 반짝이는 드로잉
2018

이렇게 반짝이면 어떨까 저렇게 반짝이면 어떨까.

4 무지개가 뜨는 자리
2018

이렇게 뜨면 어떨까 저렇게 뜨면 어떨까.

5 독무대 사운드 스케치
2018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10 works on paper
6 mark making
2018

드로잉은 가벼운 아이디어로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말장난 같은 드로잉을 하게 된다. 보통 드로잉을 명시할 때 works on paper 라고 하기에 말 그대로 종이 위에 작업들을 나열하다.

7 반짝이던 자리
2018

드로잉은 과정에 가깝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 남겨진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조차 드로잉으로 보일 때가 많다.

8 아이디어 스케치
2018

순간 아이디어가 반짝이면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다. 그 적은 행위 자체가 드로잉이고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드로잉이 아닐까.

9 툭툭 드로잉
2018, 벽에 먹지로 전사

먹지 carbon paper에서 언어유희로 시작된 드로잉. Carbonated drawing을 직역하면 탄산이 든 드로잉이 되는데 먹지도 탄산도 처음은 질지만 결국 연해진다.

11 부풀린 선-날숨
2018

흐으읍,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